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

□ 2011년 1/4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*은 73만 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.1% 증가했으며, 이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각종 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과 부담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
- 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포함한 경상조세 지출은 10만 6천원으로 12.5% 증가하였는데 동 지출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임.
- 국민연금 등의 연금 지출은 9만 8천원으로 5.6% 증가했고,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도 9만 6천원으로 8.7% 증가함.
 - 연금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되면서 노후를 대비한 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 지출이 증가함.
 - 고용개선 효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1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함.
-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비용 지출이 11.7% 증가하여 8만 1천원을 기록함.
 - * 비소비지출이란 조세, 공적연금, 사회보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없이 발생하는 의무적 지출과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지출을 의미함.

□ 1/4분기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0.5%p 늘어난 19.1%로 나타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으로 19%대를 기록함.

- 이는 가구소득이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19만원을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아닌 비소비지출로 소비한다는 의미임.
- 비소비지출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사전 공제되는 항목이 대부분이므로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 시에도 가계경제 호전을 체감하기는 어려움.

(2011년 1/4분기 가계동향, 통계청, 5/21)